

사이버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Perceptions and Relationships Among Dominants of Deviant Behavior in Cyber Space

김미량*, 엄명용**, 김태웅***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Mi-Ryang Kim(mrkim@skku.ac.kr)*, Myoung-Yong Um(umycom@skku.edu)**,
Tae-Ung Kim(tukim@skk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인터넷활용정도, 익명성인식, 두려움으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실증한 연구로서 사이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탈행위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도 양질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공헌을 하리라 본다.

■ 중심어 : | 사이버 일탈행위 | 익명성 인식 | 인터넷 활용 | 사이버 범죄의 두려움 | 공분산구조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relationships among dominants affecting deviant behavior of adolescent in cyber space.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explaining the intensity level of cyber deviant behavior, employing internet usage, awareness of anonymity, fear of cyber crime, and perceived seriousness as major research variables, and collected 478 survey responses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 keyword : | Cyber Deviant Behavior | Internet Usage | Awareness of Anonymity | Fear of Cyber Crime |

1. 서론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로 일반적인 범죄와는 구분된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홈페이지 또는 웹 사이트의 해킹,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 및 사기행위, 자료 변조 및 유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직접적이면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에드웨어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음란물의 거래와 유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단순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부당한 접근이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의 인격 및 명예 손상 정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들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

* 본 연구는 2007년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R01-2006-000-10954-0)(2007)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0222-003

접수일자 : 2007년 02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7년 04월 26일

교신저자 : 김태웅, e-mail : tukim@skku.ac.kr

보 보호, 일탈행위에 대한 두려움 인식, 예방대책 관련 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해 준다. 한편, 사이버 범죄는 기술적·시스템적 신뢰와 인적·사회적 신뢰에 대한 침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으므로, 사이버 범죄와 일탈행위의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신뢰와 위협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규범의 확산정책이 절실하다[7].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회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처음에는 단순히 비인가된 자료의 교환, 언어공격, 비방행위, 허위사실의 유포 등과 같은 크지 않은 일탈행위(윤리적 측면)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탈행위의 예방은 곧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이버 범죄(법률적 측면)를 예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탈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대비하였을 때, 효과의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공간의 일탈행위를 일으키는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실증함으로써 일탈행위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도 양질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의 고찰

1. 일탈행위

조찬식[9]은 사이버공간의 일탈행위를 '대역폭(bandwidth) 낭비',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 '정보의 도용', '부적절한 정보의 게재' 등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법적 장치의 강화, 기술적 장치의 강화, 통신윤리교육의 실시, 그리고 가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역폭의 낭비 요인으로 동일

한 질문의 반복, 중복된 정보의 게재, 개인공간의 불필요한 정보저장을 이야기 했으며,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요인으로는 음담패설이나 욕설 그리고 비속어의 사용, 은어와 약어의 사용, 인신공격적 발언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정보도용 요인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야기 하였으며, 부적절한 정보의 게재 요인으로는 불명확한 정보의 게재, 과도한 폭력을 묘사하는 정보의 게재, 외설정보의 유통, 상업적 정보의 게재, 부적절한 정보의 게재 등이 있다고 하였다.

Thornberry[27]의 연구는 비록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탈행위의 과정이 가족의 유대, 일탈친구의 영향, 개인의 성장과정 등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정과 친구의 사회관계가 일탈행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일탈행동의 결과가 또한 가정과 친구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탈행위의 과정은 개인의 성장을 통해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고리를 통해 시작, 지속,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위의 개념을 비인가된 자료의 교환, 언어공격, 비방행위, 허위사실의 유포 등과 같은 행위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자한다. 일탈행위가 개념상 사이버범죄와 유사하지만, 사이버범죄가 법률적인 관점이라면, 본 연구의 일탈행위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네티켓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 두려움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감정적 관점을 중시하는 연구로 이 관점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서 찾는 것이다. 둘째, 평가적 관점에서의 연구로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실증적 측정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감정적 측면의 연구는 다시 피해경험적 접근(Victimization perspective)과 사회통제적 접근(Social control perspective)으로 나누어진다[17]. 피해경험적 측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kogan[26]은 피해경험이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이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된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른 인구통계학적인 하위 집단들에게도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와는 다르게 피해경험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견해의 연구들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며 텔레비전,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수록, 신문을 많이 볼수록 범죄의 두려움을 크게 느끼며, 훨씬 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18][30].

본 연구에서는 두려움을 평가적 측면으로 한정하여, 사이버공간의 일탈행위가 자신에게 발생하였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평가로 제한하고자 한다.

3. 익명성

익명성에 관한 국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순용[4]은 익명성과 사이버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익명적 의사소통의 유형과 원칙을 조사하고,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기술하였으며, 익명성과 실명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익명성, 자유, 책임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익명성으로 인해 책임이 감소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고, 사이버공간상의 내적인 자기책임으로서의 사이버 책임이 분권화되는 인터넷사회에서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박정순[3]도 익명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각양각색의 정도를 가진 매우 복잡한 개념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아정체성과 신원, 사생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책임, 비윤리적 행태와 사이버범죄, 사이버공간의 통제와 검열 등과 관련되므로, 익명성에 대한 개념 분석을 시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익명성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익명성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Johnson과 Miller[19]의 연구에서는, 익명성은 그 특성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나 유해한 행위를 범하기 쉽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부터, 누

구로부터, 언제 그러한 정보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의 근원을 흐리게 하는 속성이 있어서 정보에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Marx[25]은 익명성의 사회적 반영이라는 연구에서 익명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전통적인 가치인 자유 대 질서, 도덕적 책임 대 프라이버시, 공동체 대 개인주의, 표현의 자유 대 명예훼손과 희롱으로부터의 자유, 통신상의 정직한 직설적 표현 대 절제된 외교적 표현, 창조와 실험 대 오용과 무책임성, 알 권리 대 개인적 정보의 통제권, 시민에 대한 적절한 보편적 대우 대 다양한 개인적 격차와 차이점의 부각, 알려지고 싶은 욕구 대 혼자 있고 싶은 욕구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덕목들 사이의 갈등 상황으로 대변된다고 보고 일방적이 아닌 어떤 절충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익명성이란 현실 세계와는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III. 연구가설 및 모형 설정

1. 연구가설

1.1 일탈행위와 두려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의 일탈행위가 정도를 넘어섰을 때, 사이버범죄와 같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사회문제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한편, 사이버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있다. 먼저 박경식[2]은 사이버범죄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하였고, 강동범[2]은 컴퓨터범죄를 포함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이라 정의하였고, 이민식[5]은 인터넷 사이트나 이를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실세계의 범죄 및 폭력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인식(perception), 감정(feeling), 행위(behavior)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세분화하

고, 이러한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범죄 및 무질서한 근린환경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이 피해위험의 지각을 유발하며, 지각된 피해위험이 두려움의 감정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감정은 행동상의 반응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14][15][23][2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인식이 낮을수록, 일탈행위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1.2 익명성, 일탈행위, 두려움의 관계

Kizz[21]는 익명성을 단순히 “정체성의 부재”로 정의하였고, 조동기 등[8]은 상대방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정체확인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사기,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Kling et al.[22]은 익명성이 책임의 귀책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익명성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두려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2 익명성 인식이 높을수록 사이버 일탈행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 익명성 인식이 낮을수록 사이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1.3 인터넷 활용 정도, 익명성, 두려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활용 정도를 인터넷 사용시간, 전자상거래 횟수,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자료 다운로드 횟수로 측정하였다. 인터넷에 대한 활용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5]. 그러므로 인터넷활용에 대한 경험이 낮을수록 사이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4 인터넷활용정도가 낮을수록 사이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아이디(id)나 아바타(avatar)에 대한 활용빈도 및 경험이 많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사진파일, 음악파일, 유틸리티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다운로드 횟수가 높을수록 익명성에 대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적 행태가 높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5 인터넷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인식은 높을 것이다.

2. 연구모형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정리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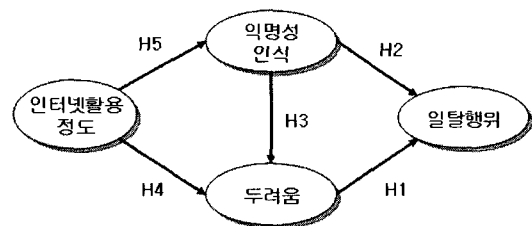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도식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측정을 위한 측정변수(measured variable) 및 근거가 되는 문헌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일탈행위에 대한 측정은 조찬식[9], Thornberry[27], 이민식[5], 정태석 외[7], Gates & Rohe[17]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두려움에 대한 측정은 Warr[28][29], Ferrano & LaGrange[14]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역명성에 대한 측정은 Johnson & Miller[1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인터넷 활용은 이민식[5]과 Kling et al.[22]의 연구를 근거로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1주일 동안 다운받은 사진, 음악, 각종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횟수를 측정하였다.

표 1. 측정변수 및 근거 문헌

변수	해당 설문 항목의 구성	근거 문헌
일탈 행위	귀하는 아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습니까? - 음란물을 친구와 교환한 적이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비방행위에 동조한 적이 있다. -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에 대해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을 친구들과 교환한 적이 있다.	조찬식[9], Thornberry[27], 이민식[10], 정태석 외[11], Gates & Rohe[21]
두려움	만약 다음의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일탈행위가 귀하에게 발생한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 나에 대한 비방 행위 - 나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언어폭력 - 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Skogan[26], Heath & Petraitis[18], Williams & Dickison[30], Warr[28][29], Ferrano & LaGrange[14]
역명성	나는 인터넷 사용시 혹은 인터넷 상에서 - 익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알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Johnson & Miller[19]
인터넷 활용	귀하의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거의안함 ② 1시간미만 ③ 1-2시간 ④ 2-3시간 ⑤ 3시간 이상 귀하가 1주일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사진/음악파일/각종프로그램 등) 다운로드 등을 얼마나 자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 9회 이상	이민식[5], Kling et al.[22]

IV. 실증분석 및 논의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수집은 리서치 전문업체인 A사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500명이 설문에 참가하였으나, 실증분석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불성실 응답자 22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478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패키지로는 SPSS 11.0 및 AMOS 5.0을 이용하였다.

한편,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심리학회에서 권장하는 적합도 정보인 χ^2 값(작을수록 바람직), χ^2 값에 대한 p 값(≥ 0.05 바람직), TLI(Turker-Lewis Index 또는 Non-Normed Fit Index: ≥ 0.9 바람직),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바람직), Normed χ^2 (일반적으로 2.0~5.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 GFI(Goodness-of-Fit Index: ≥ 0.9 바람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 바람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05 바람직) 등을 이용하였다 [12][13][20].

2. 측정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92.739$, $df = 38$, $p < 0.00$, $TLI = 0.954$, $CFI = 0.968$, Normed $\chi^2 = 2.440$, $GFI = 0.966$, $RMSEA = 0.053$, $RMR = 0.055$ 로 나타나, $RMSEA$, RMR 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한편, 완전 표준화 적재량이 모든 요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용가능 수준[10]인 0.6보다 높게 도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t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 수렴타당도와 단일차원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각 구성개념에 대한 개념신뢰도가 모든 요인에서 수용가능수준인 0.7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16] 한편, 잠재개

념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조사한 결과 일탈행위, 두려움, 익명성 인식, 그리고 인터넷 활용 정도가 각각 0.854, 0.952, 0.709, 0.796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0.5 이상[11]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요 인		완전 표준화 적재량	t-값	개념 신뢰도
일탈행위 (Devi)	Devi1	0.677	- ^a	0.946
	Devi2	0.838	14.65	
	Devi3	0.687	12.836	
	Devi4	0.718	13.293	
두려움 (Fear)	Fear1	0.787	- ^a	0.983
	Fear2	0.903	19.613	
	Fear3	0.820	18.807	
익명성 인식 (Anony)	Anony1	0.601	- ^a	0.822
	Anony2	0.648	10.119	
인터넷 활용정도 (Using)	Using1	0.606	- ^a	0.881
	Using2	0.753	13.777	

¹⁾ p<0.001
²⁾ 분석시 1로 고정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구조모형(overall model)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99.162$, $df=39$, $p<0.00$, $TLI=0.951$, $CFI=0.965$, $Normed \chi^2=2.543$, $GFI=0.964$, $RMSEA=0.057$, $RMR=0.057$ 로 도출되었다. RMSEA, RMR 값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기는 하나 전반적인 적합도 평가지수가 비교적 높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구조모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구조모형에서의 표준화 경로계수

가설	경로	인과 관계	표준화 경로계수	t-값	수용 여부
H1	두려움 → 일탈행위	부(-)	-0.278	-3.548	채택
H2	익명성 인식 → 일탈행위	정(+)	0.818	5.196	채택
H3	익명성인식 → 두려움	정(+)	0.593	3.101	채택
H4	인터넷활용정도 → 두려움	부(-)	-0.401	-2.588	채택
H5	인터넷활용정도 → 익명성인식	정(+)	0.692	4.561	채택

¹⁾ p<0.01

한편, 본문에서 제시한 가설1부터 가설5는 [표 3][그림 2]와 같은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로서 채택 또는 기각 여부를 검정할 수 있다. 가설검정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 [표 3]와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설1(H1)부터 가설5(H5)까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들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채택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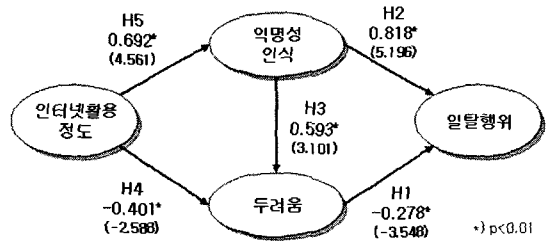


그림 2. 가설검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인터넷활용정도, 익명성인식, 두려움으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실증한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사회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행위에서 시작됨을 착안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의 예방이 곧,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탈행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일탈행위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도 양질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공헌을 하리라 본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을수록 일탈행위가 높게 나타났다(H1).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자

신에 대한 비방행위, 인신공격, 언어폭력,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 등을 두렵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일탈행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 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교육하여 사람들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일탈행위가 높게 나타났다(H2). 이러한 사실은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실 세계와는 다른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익명성의 폐해를 실증한 결과이다. 그러나 익명성이 개인의 자유나 민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어두운 면만을 가지고 있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할 체계화된 윤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 인식이 높을수록 사이버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H3).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서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가설2(H2)에서와 같이 일탈행위도 많이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익명성은 양날의 칼과 같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사이버공간에서 일탈행위를 조장하게도 하지만, 자신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양면적 성질을 가지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익명성의 자유와 그로 인한 책임 및 의무를 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활용정도가 낮을수록 사이버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H4).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활용도(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및 1주일 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하는 파일의 수로 측정함)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사이버공간에 대한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 및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기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다섯째, 인터넷활용정도가 높을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H5).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필적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사용 초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업무와 학습 또는 여가생활의 일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정기간 동안 네티켓을 위한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본 연구의 설계와 분석과정 상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탈행위로 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사이버범죄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을 친구와 교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행위에 동조하거나,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을 하거나,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을 친구들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로 한정하고 이와 같은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크나큰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시간과 노력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탈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여 각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선행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일탈행위별 선행요인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 연구, 제11권, 제2호, pp.69-80, 2000.
- [2] 박경식,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책", 경찰대 논

- 문집, 제20집, pp.3-15, 2000.
- [3] 박정순,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004권, 제9호, pp.1-146, 2004.
- [4] 변순용, “익명성과 사이버 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57권, 제1호, pp.121-141, 2002.
- [5] 이민식, “사이버 범죄 피해에 대한 반응 : 일반모델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pp.207-247, 2002.
- [6] 이상문,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미국청소년패널조사(NY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제4호, pp.162-198, 2005.
- [7] 정태석, 설종훈, “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8] 조동기, 김병준, 조희경, “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1-154, 2001.
- [9] 조찬식, “사이버공간에서의 네티켓과 일탈행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87-202, 2001.
- [10] J. C. Anderson and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988.
- [11] R. P. Bagozzi,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in and Industrial Sales Force: An Examination of their Antecedents and Simultaneity,” Journal of Marketing, Vol.44, No.1, pp.65-77, 1980.
- [12] E. Carmines and J. McIver, *Analysing Models with Unobserved Variables: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In G. Bohmstedt and E. Borgatta(eds.), Social Measurement: Current Issues, Beverly Hills, Calif.:Sage, 1981.
- [13] S. Devaraj, M. Fan, and R. Kohli, “Antecedent of B2C Channel Satisfaction and Preference: Validating e-Commerce Metric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13, No.3, pp.316-333, 2002.
- [14] K. F. Ferraro and R. L. LaGrange,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Vol.57, pp.70-101, 1987.
- [15] K. F. Ferraro, *Fear of Crime :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 SUNY Press, 1995.
- [16] C. Fornell and D. F. La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 [17] L. B. Gate and W. M. Rohe, “Fear and Reaction to Crime: A Revised Model,” Urban Affairs Quarterly, Vol.57, pp.425-453, 1987.
- [18] L. D. Heath and J. Petraitis, “Television Viewing and Fear of Crime: Where Is the Mean World?,”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8, No.1, pp.97-123, 1987.
- [19] D. G. Jhonson and K. Miller, “Anonymity, Pseudonymity or Inescapable Identity on the Net,” Computer and Society, 1998.
- [20] K. G. Jöreskog, “A General Method for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Biometrika, Vol.57, No.1, pp.239-251, 1970.
- [21] J. M. Kizza,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1998.
- [22] Kling et al., *Asse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in Baird, R. M, Ramsower, R., Rosenbaum, S.E(ed.): Cyberethics - Social and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Prometheus Books, New York, pp.107-128, 2000.
- [23] R. L. LaGrange, F. F. Kenneth, and M. Supancic,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29, pp.311-344, 1992.
- [24] M. S. Lee and T. U. Jeffery, “Fear of Crime Among Korean Americans in Chicago

Communities," *Criminology* Vol.38, pp.1173-1206, 2000.

- [25] G. Marx, "What's In A Name? Some Reflections on the Sociology of Anonymity," *Information Society*, Vol.15, pp.99-112, 1999.
- [26] W. Skogan,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n Fear," *Crime and Delinquency*, Vol.33, No1, pp.135-154, 1987.
- [27] T. P. Thornberry, "Toward an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25, pp.863-892, 1987.
- [28] M. Warr, "Fear of Rape Among Urban Women," *Social Problems*, No.32, pp.238-250, 1985.
- [29] M. Warr, "Fear of Victimization and Sensitivity to Ris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1987, No.3, pp.28-46, 1987.
- [30] P. Williams and J. Dickinson, "Fear of Crime: Read All Abou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paper Crime Reporting and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3, No.1, pp.33-56, 1993.

엄명용(Myoung-Yong Um)

정회원



- 200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복수전공 (이학사)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공분산구조분석, u-Learning, 문화콘텐츠, 디지털 경영

김태웅(Tae-Ung Kim)

정회원



- 1982년 :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1986년 : 퍼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기술경영, u-Learning, 문화콘텐츠, 모바일 게임

저자소개

김미량(Mi-Ryang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 1989년 2월 : 미국 리하이대학교 교육공학과 (이학석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박사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u-Learning, Computer-Based Interactive Design, Diffusion of IT or IT-Based Learning